

시론

바람처럼 흐르는 삶의 철학



김선옥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아무런 말 없이 다가오는 날들이 있다. 강물처럼 고요히, 숨처럼 깊게, 그리고 바람처럼 다정하게. 보이지 않는 그 순간들은 인생이란 긴 여정 속에 조용히 흔적을 남긴다. 나는 종종 그 흔적을 더듬으며 바람의 언어를 떠올린다. 바람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다만 잎을 흔들고, 물결을 일렁이며, 우리의 옷깃을 스쳐 지나간다. 누군가는 그것을 스침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위로라 부른다. 설명이 필요 없는 감정들이 바람처럼 지나간다. 인생 또한 그렇다. 많은 순간은 말 없이 지나가고, 그 의미는 어느 날 문득 찾아온다. 그 조용한 깨달음이 마음을 물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어릴 적, 나는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묻는 적이 있다. 어른은 대답 대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

뒤 그 동작이 곧 대답이었음을 깨달았다. 삶의 시작과 끝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말보다 조용한 시선과 바람결이 삶을 이끄는 진짜 언어가 아닐까.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흐르길 멈추질 않는다. 때로는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잔잔히 돌을 감싸며 지나간다. "모든 것은 흐른다(Panta Rhei)"라고 말한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처럼, 우리의 삶도 흐름 그 자체다. 중요한 것은 속도나 방향이 아니라, 흐르는 태도에 있다. 거센 물살이든 고요한 잔물결이든, 흐름 안에는 다정함과 용기가 공존한다. 해는 지고 또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잎을 흔들고, 잎은 흙으로 간다. 어제의 나는 강물이었고, 오늘의 나는 안개다. 기억은 흐려지고, 감정은 변해가며, 우리는 변화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듯, 삶 역시 정지하지 않는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고 흘러간 만큼 깊어진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존재는 바로 그 흐름 속에서 드러난다. 숲은 수많은 생명이 쌓인 이야기의 집합이다. 나무는 각기 다른 뿌리를 지녔지만, 땅 아래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인간

도 마찬가지다.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기적에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은 마음을 느끼고 공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관계에 대한 갈망과 온기가 담겨 있다. 석양은 하루의 끝에서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운다. 그 붉은 빛은 이별보다도 감사의 언어로 다가온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잘 살아냈음을, 하지만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알려준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죽음은 삶의 반대편이 아니라 그 일부다"라고 말했듯, 석양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빛이다. 그 빛은 과거를 감싸며 미래를 준비시킨다. 인생의 끝마져도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답고 의미 깊게 다가온다. 희망은 때로 소리 없이 다가온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우리의 존재를 흔든다. 설명할 수 없어도 느껴지는 것, 머무르지 않아도 마음에 남는 것, 우리는 그런 희망을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용히 스쳐 가는 바람이기를, 말 없는 위로로, 흐름 속의 숨결로, 삶을 감싸는 따뜻한 흔적으로 남기를. 삶은 머무름이 아니라 스쳐 가는 순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바람처럼 존재한다.

社說

한 달 앞 광주 세계양궁대회 성공 시민 참여가 관건

2025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비장애인인 76개국 739명, 장애인대회에 43개국 427명이 엔트리 등록한 상황이다. 국제대회 출전 경험이 적거나 양궁 기반이 부족한 저개발국가 10개국 15명의 선수도 초청됐다. 광주시는 막바지 준비에 총력전이다. 예·본선이 열리는 광주국제양궁장은 기존 210m에서 좌우 각 10m씩 총 220m를 확장하고, 노후 관람석의 자등도 교체했다. 대망의 결승전 장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으로 800여석 규모의 임시 좌석이 설치된다. 선수단의 쾌적한 숙박 환경을 위해선 12개 호텔, 800여 객실을 확보했다. 관람권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와 NOL인터파크 티켓에서 사전 예매를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발대식은 금명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대회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300여 명으로, 경기운영·지원, 안전 관리,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돼 활동한다.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감동의 순

간을 선물할 것이다.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이라는 슬로건대로 양궁으로 하나되는 매우 특별한 축제다. 광주시와 조직위원회는 가장 성공적인 대회를 자신하면서 지구촌에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세계양궁연맹(WA)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경기장을 대폭 개선했으며, 1천300명 선수단의 편안한 체류와 원활한 경기를 돕기 위해 수송·숙박·식사 등 운영 전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포터즈와 자원봉사단도 꾸려져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WA 총회도 회원국 160개국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다시 한번 국제행사를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다.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 귀중한 노하우를 축적했다. 역대급 흥행으로 국제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9월5일 개막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전 세계인의 눈과 귀가 광주로 쏠리고 있다.

'답보' 동구 월남동 차고지 이전 희망고문은 아닌지

광주시가 2018년 동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약속한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사업이 곁돌면서 주민들의 한숨이 깊다. 대체 부지로 약 2km 떨어진 선교제 남측이 도출됐지만 아직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광주시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타당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며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공영차고지는 지난 1998년 8월 1만2천23㎡ 규모로 들어선 이후 지금은 시내버스 160여대의 종착지이자 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2016년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불거졌으며, 1차와 2차 단계 사이에 위치해 소음과 매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동구는 2018년 2월 이전 사업에 대한 용역을 건의했고, 광주시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진행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대체지로 꼽은 선교제 일대 그린벨트 규제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8월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우선 신

청한 광주시는 국토부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사전협의 차원의 브리핑을 가졌지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이유만으로 해제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녹지보존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마땅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고, 이전 뒤 구체 활용 방안도 아울러 수립해야 하는 실정이다. 설사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해도 수년이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한다. 금방 해결될 줄 알았으나 불판만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그저 계속 노력해보겠다는 관할 지자체를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분통해하고 있다. 자포자기로 이라도 고민할 정도다. 임박 동구청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가장 피부적으로 체감하는 민원이 답보 상태다. 당장 뾰족한 대안도 없어 보인다. 애초에 선부른 결정이었는데 재검토해야 한다. 희망고문이라면 멈춰야 한다. 아니라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기고

장수사회, 행복의 열쇠는 '봉사'입니다



김순권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장

우리 사회는 지금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장수 시대에 접어들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23일 현재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제 퇴직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선풍기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채우고,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찾을 것인가이다. 과거에는 퇴직 이후 잠깐의 여생만이 남아 있었지만, 현재는 30년 가까운 노후 생활이 펼쳐진다. 이 긴 시간을 단순한 소일거리로 보내기엔 너무 아깝고, 새로운 생계형 일 자리를 구하기엔 현실의 벽이 높다. 그래서 봉사자가 필요하다. 돈을 위한 노동이 아닌, 자아를 실현하고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참여로서의 활동, 그것이 바로 '봉사'이다. ◇봉사는 '행복 근육'을 단련하는 길 현대 뇌과학은 봉사의 효능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는 우울감을 낮추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고령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았으며, 평균 수명도 길었다. 봉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행복 훈련'이다.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하듯 행복도 봉사를 통해 단련될 수 있는 감정이다. ◇초고령화+AI 사회, 봉사 없이는 공동체도 없다 AI와 자동화 기술의 확산으로 전통적 일자리가 줄고 있다.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에서 삶의 의미와 역할 상실은 깊은 위기감을 낳고 있다. 단절과 고립, 소외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질병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 회복이 절실하다. 과거 마을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해냈던 돌봄과 연대의 기능을, 이제는 자원봉사 문화와 사회적 돌봄 체계가 대신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삶의 의미를 찾는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감각이 더욱 중요하다. 봉사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도구이다.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경쟁과 고립 속에서 지친 청년들에게 봉사는 자존감과 사회적 연결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된다. ◇봉사, 교육과 문화로 '습관화'해야 봉사는 자연스럽게 실천되지 않는다. 습관이며, 배워야 할 문화이다. 정직, 배려, 인내와 같은 시민 덕목처럼 나눔과 봉사는 어릴 때부터 체험 중심 교육으로 익혀야 한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자원봉사 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참여와 실

적 채우기가 대부분이다. 이는 오히려 '봉사'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고, 나눔의 본질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성 있는 봉사교육, 감동과 성찰이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학교뿐 아니라 지역 사회, 종교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이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봉사 플랫폼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 어르신은 방과 후 돌봄에, 청년은 독거노인 디지털 지원에, 퇴직 전문가는 마을 학교 멘토로 참여하는 식의 세대 간 협력 모델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봉사는 삶의 철학이다 종교가 진리와 철학을 통해 인간에게 방향을 제시하듯 봉사는 노년도 삶의 의미를 재정의해주고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철학이다. 자신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손길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감각은 그 어떤 말보다 큰 감동을 준다. 나이 들어 사회 중심에서 물러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 그것이 삶의 품격이다. 봉사는 그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다. 우리 사회가 봉사하는 문화, 참여하는 공동체, 연대하는 시민정신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초고령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이제는 단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시대이다. 그 물음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장수사회, 행복의 답은 봉사입니다. 그리고 실천은 지금, 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독자투고

불법 소액 대출 미끼 내구재대출 '주의보'



이재복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소액 대출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소액 대출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각종 상품권을 현금화해주면서 고객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른바 '깡'으로도 불리는 불법 소액 대출은 일반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나 청소년 등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내구재대출'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소액 대출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행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 내구재대출 등을 검색하면 손쉽게 불법 소액 대출 광고를 찾을 수 있다. 불법 광고는 '저신용자 가능, 당일 지급' 등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나 학생들을 유혹하는 문구가 주를 이룬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문구에 혹해 불법 소액 대출을 신청할 경우 다른 범죄에 악

용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불법 소액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피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로 휴대전화 개통 및 계좌 개설 현황 등을 조회해 봐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개통된 휴대전화를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